

전북도, 올해 불안땀 만큼 물 아껴

빗물·하수처리수 등 재사용해 4,767만톤 아껴... 도내 빗물이용시설 212개소·중수도시설 20개소

올해 전북도에서 빗물과 하수처리수 등을 재사용해 불안땀(총 저수용량 5,030만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물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흘러보냈던 빗물과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중수도, 하수를 처리하고 방류되는 물을 재이용한 양은 4,767만톤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자원 총량의 26%만 이용가능한 물 스트레스 국가이다. 강수량이 6월부터 8월까지 홍수기에 편중되면서 물 이용도 취약해지고 있

어 물 부족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빗물이용시설은 비가 내릴 때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리는 빗물을 흘러보내지 않고 저류조에 저장해 썼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사용한 빗물만큼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 도내 빗물이용시설은 212개소로서 올해 18만1,637톤을 사용해 1억6,600만 원의 수돗물을 절약한 효과가 있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소형 빗물이용시설 확대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4억원을 투입, 82개소를 설치했다. 내년에도 2억원을 확보해 교육과 홍보 효과가 큰 곳을 중심으로 4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빗물 활용은 어린이에게 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교육 효과가 커 수돗물까지 절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확대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거나 빗물시설을 이용하면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도내 6개 시·군이 제정 완료하고 3개 시·군은 입법예고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전북도는 나머지 5개 시·군에 대해서도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 내년 6월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내 중수도시설은 20개소로 한번 사용한 461만톤의 물을 재이용했으며, 53개소 하수처리장에서 4,288만톤의 하수처리수를 세척수, 냉각수,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함으로써 연간 하수처리량의 13.6%를 재이용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지리산 정령치 도로 내년 3월까지 통제

지리산 정령치 구간이 내년 3월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6일 도와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강설 및 도로결빙 등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방도 737호선(고기삼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12km)을 내년 3월 13일까지 교통 통제구간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 구간은 경사가 가파르고 음지에 있어 눈이 녹지 않는 제설 취약지역이다. 또 국지도 60호선(육모정~고기삼거리) 또한 기상악화 및 교통혼란 상황 등을 고려해 상시 통제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겨울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고갯길과 출퇴근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 지방도 38개 구간을 중점관리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의용소방대장단 소통나눔 행사

전북도는 6일 4층 대회의실에서 시·읍·면 의용소방대장단 소통·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1만 3천여명의 의용소방대장 및 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대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도내 소외이웃을 위해 마련한 사랑나눔 쌀 2,000포(10kg)를 사회단체공동모금회에 기증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송하진 지사는 이종복 군산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6명의 신입 시군연합회장과 남궁영례 익산여성대장 등 신입대장 3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 봉사자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자세와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안재용 기자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시·읍·면 의용소방대장단 소통·나눔 행사에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전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6일 도에 따르면 군산과 익산·김제·임실·순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방제 대상목을 전량 제거하고 보호가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는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제 대상목은 5개 시·군에 17만 1,884본이며, 이중 고사목이 3만 9,265본, 비병징목이 13만 2,619본이다. 특히 피해 확산저지를 위해 매년 반복 발생 지역은 모두베기를 하고, 단목으로 고사되는 소나무류에 대해서는 주변 나무까지 제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해 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류를 보호하는 방침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 친환경농산물, 서울 학교급식 지속 증가

10월 기준 2,038톤으로 6월 보다 706톤 증가... 유통·마케팅 조직 육성 효과

전북 친환경농산물의 서울 학교급식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학교급식에 친환경쌀과 원예농산물 공급량을 조사한 결과 2,038톤으로 6월 조사 때보다 706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에서는 대도시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0억원을 투자해 6개 유통조직을 선정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H/W 시설과 S/W 사업을 지원해 친환경유통 전문

조직을 육성했고, 내년까지 40억원 투자해 4개소를 추가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8개 친환경농산물 취급단체를 통해 대도시 학교 교장,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시식용 샘플 등을 제작·배포해 학교 및 학부모에게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체험 및 홍보 지원사업은 도내 조직화된 친환경농업 우수 단지를 중심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학교급식 관계자 등 도시 소비자를 직접 초청해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 지회를 통해 사전 검사를 실시해 신뢰도를 높여 전북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으로 수도권, 제주도 등의 초등학교에 눈을 조성해 학생들에게는 벼의 생육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확기에 벼베기, 밭 탈곡기, 흙데 등 옛 농기구를 이용해 수확 하는 등 농업에 대한 학습적인 효과도 거두면서 전북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안재용 기자

군산시, 내년 국가예산 1조 40억원 확보

군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조 4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1조 39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달성을 이뤄냈다. 2017년도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사업으로는 ▲군장산단입입철도 건설 1350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사업 1000억원 ▲군장대교건설 128억원 ▲고군산연결도로 건설 76억원 ▲플라즈마융복합연구개발동 건설 77억원 ▲바이오컴비나트 기술개발사업 60억원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 34억원이다. 국회단체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새만금 남북2축 도로 364억원 ▲새만금 동서2축 도로 639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414억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2,398억원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15억원이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군산수산업발전센터 신축 6억5000만원 ▲군산~말도항로 노후여객선 대체건조 27억원 ▲국제여객부두 CFS 참고 신축 14억원 ▲군산야적장 포장 41억원 등을 확보했다. 반면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3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4억원), 해상풍력 기반구축 지원항만 건설사업(102억원)은 반영되지 못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북 새마을지도자대회 성황리 개최

'다시 뛰는 새마을 운동! 도약하는 전라북도' 주제로

전북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6일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 도약하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도청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지사와 황현도의회 의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정정순 사무총장, 전북 새마을회 박명자 회장 및 임직원 및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특강, 동영상을 통한 한자 더 갖기 운동 캠페인을 가졌으며, 본행사로 2016년 새마을운동 추진 실적 보고, 새마을운동 유공자 포상, 대회사, 축사, 축하공연, 비전실천다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대회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들은 "2023 세계잡버리 새만금 유지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인구 절벽시대를 극복하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참을 유

도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자 더 갖기 운동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 도모,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이 있는 새마을운동의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이 수여됐다. 송하진 지사는 "협업의 시대, 융복합의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도에 필요한 것은 협업의 정신,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새마을 지도자와 회원 여러분께서 중심이 돼 전북을 더 큰 도약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